한화투자증권

2025년 7월 7일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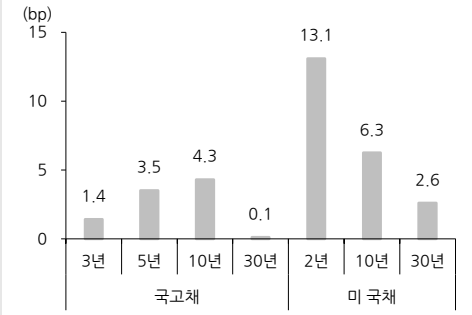
FI Weekly

금통위 프리뷰: 2024년 가을의 데자뷰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한미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금리 예상 Range

금리, 스프레드	전주(7/4)	예상 Range	방향성
국고 3년	2.47%	2.40~2.50%	하락
국고 5년	2.62%	2.55~2.65%	약보합
국고 10년	2.83%	2.78~2.88%	약보합
국고 10-3년	63.1bp	35.0~40.0bp	확대
미국 10년	4.34%	4.30~4.45%	확대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작년 가을과 비슷할 올해 여름 금통위

오는 7, 8월 금통위를 앞둔 통화정책 운영 환경은 2024년 가을(8, 10월 회의)과 흡사.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대책이 발표. 물가의 경우 그때나 지금이나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 차이점이 있다면 경제인데,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던 2024년이었지만 정작 그 해 10월은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었음

관전포인트 1. 성장 대비 금융안정이 얼마나 중요해졌나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성장을 중시하는 금통위원이 4명, 금융안정을 이야기하는 위원이 2명. 당시 총재도 경제를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성장 5명, 금융안정 2명으로 볼 수 있음. 5월에는 금융안정을 우선순위로 보는 위원이 3명, 여전히 경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위원이 2명. 여기에 부동산으로 시선을 옮긴 총재까지 이제는 4명이 금융안정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상황

관전포인트 2. 대출규제 정책 시차를 어떻게 감안할 것인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는 구조적으로 부동산시장 과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킬 것.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여러 규제들을 보면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서울에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강도. 대출이 8~9월까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규제의 효과가 없는게 아니라 7월 이전에 신청했던 대출이 실행되는, 시차에 따른 현상으로 봐야함

여전히 8월 인하가 가능한 이유

환율을 뺀 금융환경이 앞으로 지금보다 개선될 것임은 기정사실. 그렇다면 안정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한국은행이 기다릴지(10월), 아니면 시차를 감안해 움직일지(8월)가 관건인데 2024년 사례를 보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이 진정되던 중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음

부동산시장, 가계대출을 둘러싼 환경은 2024년 여름과 비슷한데 경제는 그때보다 훨씬 부진. 당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결코 부진한 수준이 아니며, '나쁘다'는 단어 선택에 신중해달라고 당부. 지금은 누가 봐도 경기는 그 당시보다 '부진'하고 '나쁜' 상황. 금번 회의는 지난 해 8월보다 조금은 신중 하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느낌일 것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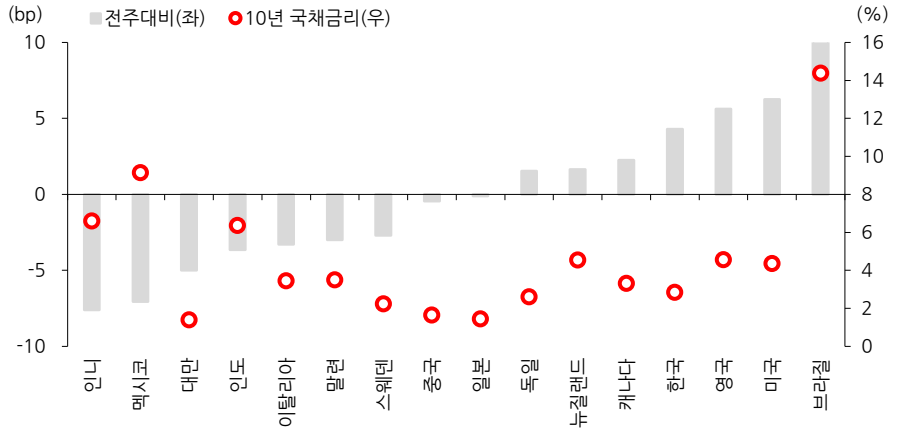
글로벌 국채금리 국가별 차별화

지난 주 글로벌 국채금리는 선진국 위주로 상승했다. 영국의 재무장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재정우려가 다시금 부각된 점이 글로벌 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Gilt 채 금리는 의회 질의 도중 재무장관의 눈물파동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하기도 했다. 주 후반에는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국고채 금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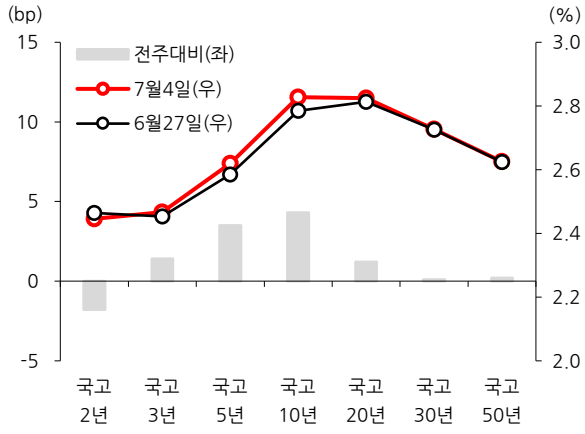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는 2년 구간을 제외하고 상승했다. 금통위를 앞두고 단기금리 등락폭은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장기구간은 대외 금리 상승, 추경 이슈 등에 영향받으며 상승했다. 확정된 2차 추경 규모는 31조 8,000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1조 3,000억원 증가했다.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1.4bp, 4.3bp 상승한 2.47%, 2.83%를 기록했다.

[그림1]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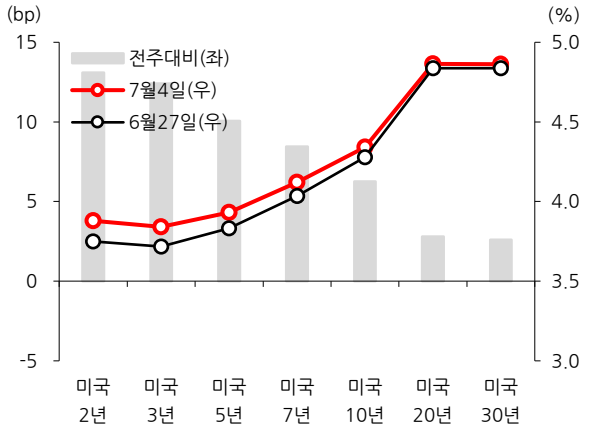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시장 전망

1. 이슈: 2024 년 데자뷰

2024년의 데자뷰

오는 7, 8월 금통위를 앞둔 통화정책 운영 환경은 2024년 가을(8, 10월 회의)과 흡사하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물가의 경우 그때나 지금이나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경제인데,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던 2024년이었지만 정작 그 해 10월은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었다. 작년 8월처럼 이번 회의는 본게임(인하)의 프롤로그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7월 금통위, 향후 인하 시점을 가늠해볼 수 있는 회의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의 기준금리(2.50%) 만장일치 동결,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저점을 지나는 경제, 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한 금융안정 등 연속 기준금리 인하 명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Forward Guidance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10월까지) 전망임을 감안, 인하 4명과 동결 2명을 예상한다. 관전포인트는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1) 성장 대비 금융안정이 얼마나 중요해졌고, 2) 대출규제 정책 시차를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 등 크게 두 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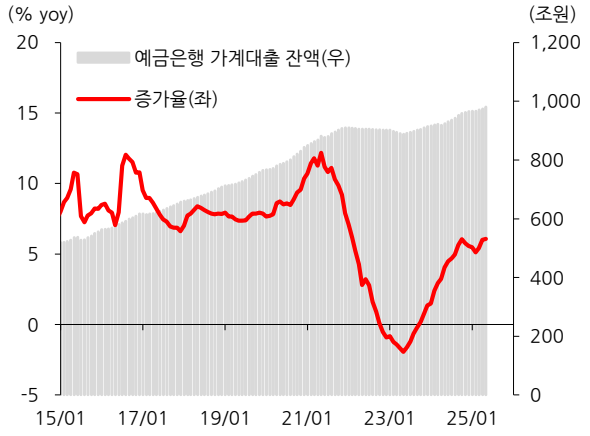
1) 성장 대비 금융안정이 중요해진 것은 맞지만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성장을 중시하는 금통위원이 4명, 금융안정을 이야기하는 위원이 2명이었다. 당시 총재도 경제를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성장 5명, 금융안정 2명으로 볼 수 있다. 5월에는 이 구도가 뒤집혔다. 금융안정을 우선순위로 보는 위원이 3명, 여전히 경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위원이 2명이었다(나머지 1명은 중립으로 판단). 여기에 부동산으로 시선을 옮긴 총재까지 이제는 4명이 금융안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

이 부분을 강조하더라도 금리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

성명서나 기지화견에서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관련 우려가 조금 더 강한 톤으로 나올 경우 시장의 예상 인하 시점은 8월이 아닌 10월 인하로 쏠릴 수 있다. 다만, 시점과 상관없이 연말 기준금리가 2.25%일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 이를 반영, 6월부터 국고 3년금리는 2.40% 부근에서 하단을 공고히 다졌다. 연내 동결을 시사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금리의 추가 상승 재료로 작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림4] 가계부채 증가세 이어지겠으나 시차 감안할 필요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경제 판단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던 8 월에도 인하 시사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대출규제 강화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는 구조적으로 부동산시장 과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킬 것이다. 발표된 대책들을 보면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서울에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강도다. 대출이 8~9월까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규제의 효과가 없는게 아니라 7월 이전에 신청했던 대출이 실행되는, 시차에 따른 현상으로 봐야한다.

그럼에도 8월 인하는 충분히 가능

환율을 뺀 금융환경이 앞으로 지금보다 개선될 것임은 기정사실이다. 그렇다면 안정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한국은행이 기다릴지(10월), 아니면 시차를 감안해 움직일지(8월)가 관건인데 2024년 사례를 보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이 진정되던 중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2024년 8, 10월 사례를 참고해보자

2024년 9월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나서 서울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지는 약 11주가 소요되었다. 8월 말 104.0을 기록했던 주택매매수급지수가 11월 중후반에 가서야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번 규제는 작년보다 훨씬 강력하다. 지난 자료에서 설명한 8월 금통위 전까지 인하 조건 두 가지(서울-전국 구택가격 격차 2.0% 중반 하회, 서울 매매수급지수 하향 안정화)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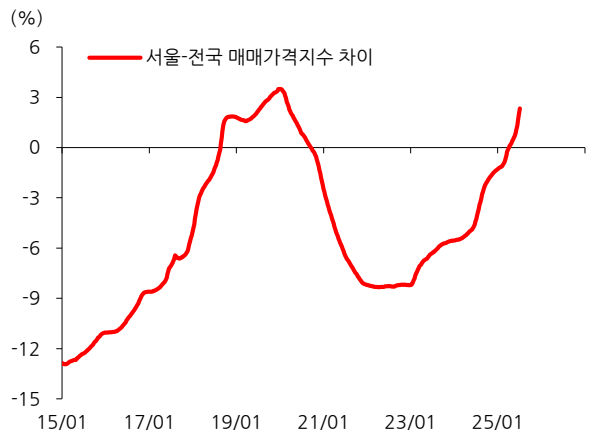
같은 금융환경, 그 때보다 더 나쁜 경제

부동산시장, 가계대출을 둘러싼 환경은 2024년 여름과 비슷한데 경제는 그 때보다 훨씬 좋지 않다. 당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결코 부진한 수준이 아니며, '나쁘다'는 단어 선택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금은 누가 봐도 경기는 그 당시보다 '부진'하고 '나쁘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금번 회의는 지난 해 8월보다 조금은 신중 하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느낌일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전망(8월 인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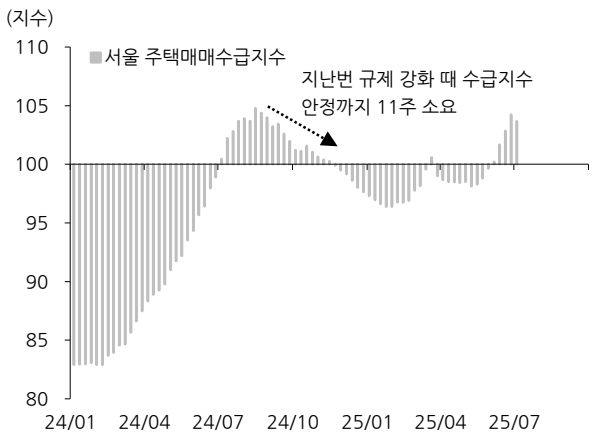
한국은행에게 금융안정은 통화정책의 목표다. 그러나 현재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는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규제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8월 인하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 중립금리와 Terminal Rate를 조금 높게 하는 요인으로 봐야한다. 반면, 경제는 나쁘다. 3분기에 본격적인 추경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인하 기조 유지의 강력한 명분이다. 따라서 기존 8월 인하 뒤 연내 동결 전망을 유지한다.

[그림6] 8월 인하 조건, 서울-전국 주택가격 격차 2% 중반 하회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8월 인하 조건, 서울 주택매매수급지수 하향 안정화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전략: 갈라진 연준 구도를 확인할 시간

국고 3년: 2.40~2.50%
국고 10년: 2.78~2.88%

이번 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2.40~2.50%, 2.78~2.88%를 제시한다. 수익률 커브는 재차 Flattening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단기금리는 금통위, 장기금리는 대내외 재정정책에 주목하면서 상승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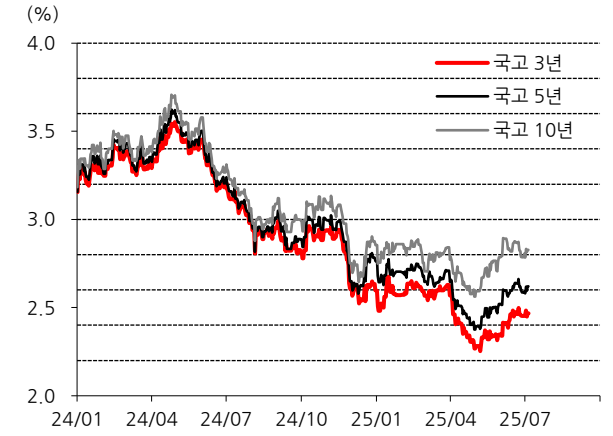
당분간 3년금리 상, 하단은 2.40~2.50%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금통위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더라도 국고 3년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강경한 기조를 보이더라도 이 역시 강력한 상승재료로 보기는 어렵다. 연말까지 통화정책은 인하의 시점(8월, 10월) 의견이 갈릴 뿐 인하 여부와 1회 인하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연말까지 보았을 때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2.40%, 2.50%은 당분간 3년금리의 상, 하단이다.

미국은 다시 매수 기회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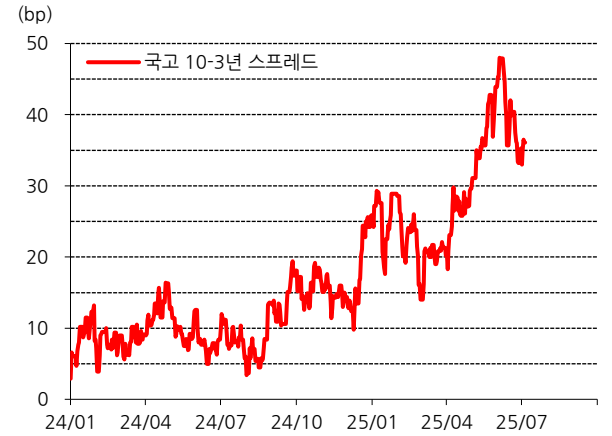
미국 OBBBA 법안 통과는 재정우려를 키우기도 하지만 시장 유동성을 가파르게 흡수하는 요인이다. 상향 조정된 부채한도로 재무부는 국채 발행에 적극적을 나설 것이고, 이는 국채 공급량을 늘려 높을 확률로 금리 상승을 이끌 것이다. 미국 10년금리 기준 재차 4.50%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8] 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고 10-3 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예상 금리 Range

금리, 스프레드	동향(대비)			예상 Range	방향성
	연초	월초	전주(7/4)		
국고 3 년	2.60%(-12.9bp)	2.45%(+1.3bp)	2.47%(+1.4bp)	2.40~2.50%	하락
국고 5 년	2.76%(-14.2bp)	2.58%(+3.9bp)	2.62%(+3.5bp)	2.55~2.65%	약보합
국고 10 년	2.86%(-2.7p)	2.78%(+4.4bp)	2.83%(+4.3bp)	2.78~2.88%	약보합
국고 10-3 년	25.9bp(+10.2p)	33.0bp(+3.1bp)	63.1bp(+2.9bp)	35.0~40.0bp	확대
미국 10 년	4.57%(-23.1p)	4.24%(+9.8bp)	4.34%(+6.3bp)	4.30~4.45%	확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통화정책 Tracker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6/30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	매파, X	- 7월 물가지표가 제일 중요하지만 7월 FOMC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월 물가지표 - 다음 번(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며 상황도 매우 불확실 - 불확실한 상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이 필요 - 2026년에도 본인들의 사업전략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는 기업들이 증가. 이는 불확실한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
7/1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	매파, X	- 관세관련 추가 위험 시그널은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보수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게끔 만드는 요인 - 여전히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있으며, 정책 여파는 시간에 걸쳐 나타날 전망 - 관세가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성은 불명확(an open question) - 상당부분 관세관련 가격 인상은 경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 - 통화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 전망 불확실성의 원인이 오롯이 관세 때문만은 아님 - 고용시장은 견조. 연준은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시간을 확보(has the luxury to be patient) - 본인은 점도표에 연내 1회, 내년 3회 인하를 전망 - 물가에 대한 관세 충격은 앞으로 더 커질 것(more tariff-related price increases to come). 그러나 언제 그 충격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고, 충격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question of when, not if) - 데이터들에 따르면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계획 -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것은 기업들이 해고에도, 추가 고용에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 - 지켜보는 것이 물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 -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은 없음. 추가 인상 없이도 2% 목표 달성 가능 - 실제로 기업들이 관세를 온전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지,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최근 화두 - 임금 상승세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 소비자들도 더욱 신중해지기 시작
7/1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중립, O	- 그 어디에서도 1970년대와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은 찾아볼 수 없음 - 물가와 실업률의 동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definitely possible)
7/1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 세계는 더 많은 불확실성, 이로 인한 물가 변동성 확대를 마주하고 있음. 빈번해진 공급망 불안으로 기업들은 더욱 자주 가격을 조정할 것 - ECB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노력 중
7/1	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	-	- 관세로 인해 물가에 최종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유심히 관찰할 필요. 고용은 둔화(softening) 중 - 기준금리 경로는 점진적으로 아래를 향할 것(continue to be downwards) - 관세가 물가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the judgement is that persistence is less likely) - 최근 들어 수익률 커브가 가팔라지기 시작. 그러나 스티프닝 현상에 그 어떠한 비정상적인 요인도 감지되지 않았음(there is anything unusual about the UK in terms of the yield curve) - 양적긴축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상승한 것이 아님 - 현 시점에서 영국 부채 수준은 문제될 것이 없음
7/1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 - 앞으로도 물가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extremely vigilant)할 것 - 앞으로의 기준금리 경로를 예상할 수는 없음. 모든 것은 데이터들이 결정 - 환율 흐름까지 고려, 여러 전망작업들을 수행 중
7/1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	- 기조적 물가는 지금도 목표수준을 하회 중 - 기준금리도 중립금리 밑에 위치. 추정 중립금리 범위는 매우 넓음 -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흐름이 결정할 것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7/1	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	-	- 경제와 고용의 둔화 징후가 포착 - 영국 물가는 전적으로 정부 관리물가에 달려있음 - 관세가 물가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 - 기준금리는 인하 사이클에 위치. 긴축 통화정책은 중립 수준까지 계속해서 조정될 것
7/1	Jerome Powell (연준 의장)	비둘기파, O	- 미국 경제는 상당히 양호(pretty good)한 수준. 물가는 기대했고, 예상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 여름 즈음 더 많은 데이터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 - 관세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통화정책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 - 기다리면서 나오는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한 선택 - 연준 인사 중 다수는 확고하게(solid majority) 연내(later this year)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7월 기준금리 인하가 섣부른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음. 모든 것은 데이터들이 결정 - 점진적인 고용시장 둔화(gradual cooling)를 보고 있음 - 경제는 지금까지 견조했고, 고용시장은 지금도 견조 - 가을(in the Fall)에 여러 시나리오들을 논의할 예정 - 미국 정부부채 수준은 지속가능한 수준이지만 재정정책 경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님 - 은행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는 강력하게 지지(fully support)
7/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 한국 입장에서 관세는 디플레이션 요인 - 1) 우리나라가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 2) 수입의 22%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수출 물가가 연간 5% 하락. 앞으로도 이 추세는 이어질 것 - 3)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0.8%. 수요 압력이 매우 약한 상황 -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보유한 한국은 글로벌 파편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미국 관세정책 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을 통한 간접적 영향도 존재 - 관세가 지난 4월 발표된 26%로 돌아가고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지속될 경우 GDP에 1% 이상 영향을 미칠 전망 - 원화가 지난 두 달간 빠르게 절상됐으나, 이는 한국 내부 이벤트들이 종료되었기 때문. 그 동안 원화가치는 펀더멘털 대비 훨씬 절하되어 있었던 상황
7/3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	중립, X	- ADP보다는 고용보고서와 실업률을 주시 중 - 무역정책, 물가는 물론 고용까지 다음 번 FOMC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 - 경제는 견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현 시점에서 정책을 조정할 시급한 이유는 없음(no urgency to change policy) - 기업들은 무역정책 전개 양상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중. 그들은 해고, 사업 철수가 아닌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 -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가격 상승을 우려하나 소비를 줄이려는 조짐은 없음 - 관세로 인해 물가는 일부 상승하겠지만 소비 둔화가 이를 상쇄할 가능성
7/4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	매파, X	-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broadly healthy) 수준을 유지 중이며 목표한 범위 안에 있음. 따라서 연준은 무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 인플레이션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고정을 풀어버릴 리스크를 주시 중 - 최근 물가 데이터들은 상승 압력 강화 시점이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 - 관세와 여러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음. 1년 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것 - 앞으로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높은 수준이 한동안 유지될 전망(longer period of elevated inflation, but no spikes) -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연기 중 - 관세정책은 단시일 내에 자리잡을 정책이 아님. 이는 기업들의 최종 가격 책정 결정을 어렵게 만듦 - 연준은 고용 목표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함(must be more explicit) -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두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명확 - 몇 달간 물가가 예상 경로 안에서 움직인 것은 사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 - 현 시점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는 유용한 도구가 아님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시장 주요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 **(한국)** 국고 3년 입찰(4조 3,000억원) **(유로존)** 7월 센틱스 투자자신뢰지수 (전월: 0.2, 전년: -7.9) 5월 소매판매 (전월비: 0.1%, 전년비: 2.3%)	8 호주 RBA Reserve Bank Board Meeting **(미국)** 6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예상: 97.9, 전월: 98.8, 전년: 91.5)	9 뉴질랜드 RBNZ 통화정책회의 **(미국)** 3년 국채 입찰 (3.97%, 간접: 66.8%, 응찰률: 2.52배) 6월 뉴욕 연은 기대인플레이션(1년) (전월: 3.2%, 전년: 3.0%) **(중국)** 6월 PPI (전월비: -0.4%, 전년비: -3.3%) 6월 CPI, Core CPI (CPI 전월비: -0.2%, 전년비: -0.1%) (Core 전월비: 0.0%, 전년비: 0.6%)	10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미국 연준 FOMC 의사록(6월) **(미국)** 10년 국채 입찰(Reopening) (4.42%, 간접: 70.6%, 응찰률: 2.52배)	11 Da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비둘기파, X) 연설 **(미국)** 30년 국채 입찰(Reopening) (4.84%, 간접: 65.2%, 응찰률: 2.43배)
14 **(한국)** 국고 10년 입찰(1조 8,000억원) **(중국)** 6월 수출입(위안화) (수출 전월비: 0.6%, 전년비: 6.3%) (수입 전월비: -2.5%, 전년비: -2.1%)	15 Collins 보스턴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한국)** 5월 M2 통화공급 (전월비: 0.2%, 전년비: 5.7%) **(미국)** 7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전월: -16.0, 전년: -14.8) 6월 CPI, Core CPI (CPI 예상 전월비: 0.3%) (Core 예상 전월비: 0.3%, 전년비: 3.0%) (CPI 전월비: 0.1%, 전년비: 2.4%) (Core 전월비: 0.1%, 전년비: 2.8%) **(유로존)** 7월 ZEW 경기전망지수 (전월: 35.3, 전년: 43.7) 5월 산업생산 (전월비: -2.4%, 전년비: 0.8%) **(중국)** 2분기 GDP (전분기비: 1.2%, 전년비: 5.4%) 6월 소매판매 (전월비: 0.9%, 전년비: 6.4%) 6월 산업생산 (전월비: 0.6%, 전년비: 5.8%)	16 Collins 보스턴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Logan 달라스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한국)** 6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비: -3.4%, 전년비: -2.4%) (수입 전월비: -3.7%, 전년비: -5.0%) 6월 실업률 (전월: 2.7%, 전년: 2.8%) **(미국)** 6월 PPI (전월비: 0.1%, 전년비: 2.6%) 6월 산업생산 (전월비: -0.2%, 전년비: 0.6%)	17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미국)** 6월 소매판매 (전월비: -0.9%, 전년비: 3.3%) 6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비: -0.9%, 전년비: 1.7%) (수입 전월비: 0.0%, 전년비: 0.2%) 7월 필리델피아 연은 업황 전망 (전월: -4.0, 전년: 12.8)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전월: 32.0, 전년: 41.0) **(유로존)** 6월 CPI, Core CPI (CPI 전월비: 0.0%, 전년비: 1.9%) (Core 전월비: 0.0%, 전년비: 2.3%)	18 **(미국)** 6월 주택착공 (전월비: -9.8%, 전년비: -4.6%) 7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잠정) (전월: 60.7, 전년: 66.4) **(유로존)** 5월 경상수지 (전월: +198억€, 전년: +401억€)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